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3

제 [] 선택

1

윤리와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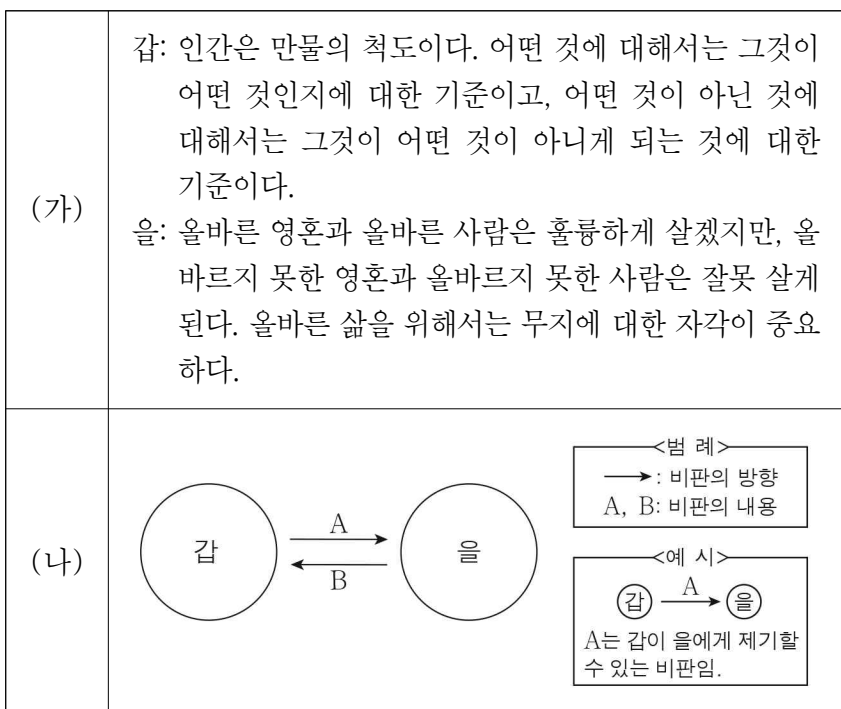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OO에게

지난번에 자네가 질문한 이상적인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답하고자 하네. 학문에 힘쓰는 사람은 날마다 지식을 쌓아 가지만, 세상을 얻을 수는 없다네. 하지만 도(道)에 힘쓰는 사람은 날마다 덜어 내고 또 덜어 내어 무위(無爲)에 이르니,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네. 그런 까닭에 이상적인 삶을 살려면 도에 힘써야 하네. 이를 위해서는 소박(素樸)함을 지향하고 욕심을 줄이며 지식에 얽매이지 않아야 하네.

- ① 열반에 이르기 위해 팔정도(八正道)를 닦아야 한다.
- ②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타고난 덕성을 회복해야 한다.
- ③ 시비선악을 명확하게 분별하여 선한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 ④ 인의(仁義)의 실현을 위해 사사로운 욕망을 극복해야 한다.
- ⑤ 현자(賢者)를 숭상하고 예(禮)를 높여 무위에 이르러야 한다.

2.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 보편타당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간과한다.
- ② A: 참된 지식을 갖춘 사람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③ B: 참된 행복은 현실에서 부와 권력을 획득하는 것임을 간과한다.
- ④ B: 공동체의 관습이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B: 인간의 감각적 경험을 지식의 근원으로 보아야 함을 간과한다.

3.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천명지성(天命之性)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며 의를 좋아하고 탐욕을 미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성(性)이 선을 행하기를 좋아함은 마치 물의 성이 아래로 흘러가기를 좋아하고 불의 성이 위로 올라가기를 좋아하는 것과 같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늘[天]이 이 성을 부여하였으니, 비록 사람이 온갖 탐욕과 음란과 학살을 행하더라도 이 성만은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

- ① 사단은 모든 사람에게 선천적으로 내재하는 성이다.
- ② 사단의 실마리[緒]인 사덕은 사단의 확충을 통해 형성된다.
- ③ 사람의 기질에 따라 천명지성이 향하는 선악의 방향은 다르다.
- ④ 하늘이 명(命)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모든 욕구는 제거되어야 한다.
- ⑤ 마음을 보존하고 성을 기르는 것[存心養性]은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

4.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모든 것은 우리의 본성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필연적으로 선이다. 인간은 이성의 지도에 따를 경우에 언제나 본성과 필연적으로 일치한다. 인간이 이성의 지도에 따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덕 있는 행동이며,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지복(至福)에 이를 수 있다. 지복은 신을 직관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오는 정신의 만족이다.

- ① 인간은 신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주체이다.
- ② 신은 자유 의지를 발휘하여 자연의 인과 법칙을 초월한다.
- ③ 인간은 자신이 유한한 실체임을 자각하고 살아갈 때 자유롭다.
- ④ 신의 본질을 직관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 ⑤ 인간은 이성으로 자연의 필연성을 인식함으로써 행복을 누릴 수 있다.

5.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색(色)은 모인 물방울과 같고, 수(受)는 물거품 같으며, 상(想)은 봄철의 아지랑이 같고, 행(行)은 파초와 같으며, 식(識)은 허깨비와 같음을 관찰하라. 두루두루 자세히 사유(思惟)하고 바른 기억으로 잘 관찰해 보면 알맹이도 없고 단단하지도 않으니, 거기에는 나[我]도 내 것[我所]도 없다.

- ① 오온(五蘊)의 실상을 파악하여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 ② 연기(緣起)를 통찰하여 만물이 고정된 실체임을 깨달아야 한다.
- ③ 윤회(輪廻)를 거듭하기 위해 삼독(三毒)을 없애고자 노력해야 한다.
- ④ 만물의 무상(無常)함을 깨달아 무명(無明)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⑤ 무상한 것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도 존재하지 않음을 자각해야 한다.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6. 사회사상가 갑, 을의 이상 사회에 대한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유토피아는 초승달 모양의 섬에 54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 사람들은 오직 6시간만 일하고, 오락과 학술 연구로 여가 시간을 향유한다. 또한 집집마다 빗장을 걸지 않고, 10년마다 추첨을 통해 집을 교환한다.

을: 새로운 아틀란티스에서는 ‘지식이 힘’이라는 말이 실현된다. 이곳에 설립된 솔로몬 학술원의 학자들은 관찰과 실험으로 과학 지식을 도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간을 위해 자연물을 변화시킨다. 그 결과 사회는 풍족하게 된다.

< 보 기 >

- ㄱ. 갑: 사유 재산이 존재하지 않으며 재화가 공정하게 분배된다.
 ㄴ. 을: 구성원들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과학 기술이 활용된다.
 ㄷ. 갑과 을: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 활동이 가치 있게 여겨진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7.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각 개인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의도를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개인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게 된다.

을: 자본주의 체제에서 프롤레타리아는 그들의 노동이 자본을 증식시키는 한에서만 생존할 수 있다. 기계와 분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노동은 자립적 성격을 상실했다.

- ① 갑: 개인의 이익 추구 욕망은 국부(國富)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② 갑: 국가는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을: 자본주의 체제 국가의 목적은 프롤레타리아의 이익 증진이다.
 ④ 을: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노동 그 자체가 삶의 기본적 욕구가 된다.
 ⑤ 갑과 을: 분업화된 노동은 생산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8.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조되지 않은 선, 곧 신이다. 신은 무한한 선이므로 오직 신만이 우리의 의지를 넘칠 만큼 가득 채울 수 있다.
- 인간이 자연적 성향을 갖는 것은 자연법에 귀속된다. 선은 행하고 증진해야 하며, 악은 피해야 한다. 이것이 자연법의 첫 번째 계율이며 다른 모든 계율의 기초가 된다.

< 보 기 >

- ㄱ. 인간은 이성적 추론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ㄴ. 모든 사물은 신, 즉 자연의 의지에 의해 창조된 것이다.
 ㄷ. 신의 은총 없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ㄹ. 인간은 신의 명령인 영원법에 따라 자연법을 제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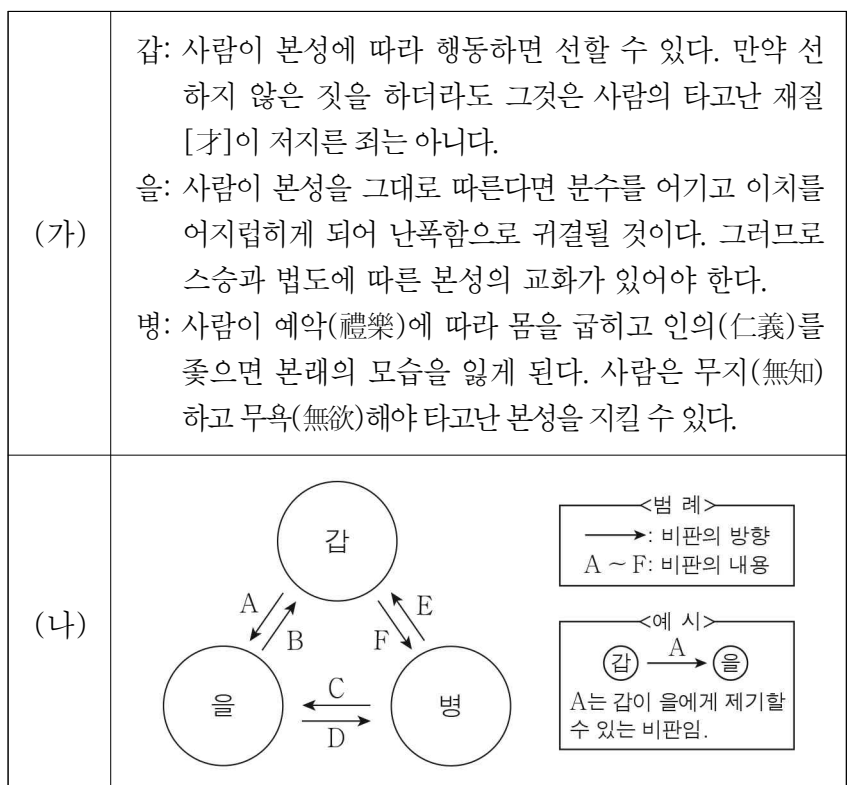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9.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국가 간의 협력은 천하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침략 전쟁은 정당화된다.
 ③ 군주는 친소(親疏) 정도에 따라 타국의 전쟁에 개입해야 한다.
 ④ 자국과 타국을 차별 없이 사랑하여 비공(非攻)을 실천해야 한다.
 ⑤ 겸애를 실천하려는 사람은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

10.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 군자와 소인은 모두 선을 행할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간과한다.
 ② B와 E: 집의(集義)를 통해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③ C: 인위적 도덕규범에서 벗어나 본성을 실현해야 함을 간과한다.
 ④ D: 하늘이 부여한 예로써 자신의 욕망을 조절해야 함을 간과한다.
 ⑤ F: 도(道)에 따라 살 때 이상적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11.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품성적 덕은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를 올곧게 해 주며, 실천적 지혜는 이 목표에 이바지하는 것들을 올곧게 해 준다. 품성적 덕은 올바른 이성애 따른 품성 상태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이성을 동반한 품성 상태이기도 하다.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이성이란 다름 아닌 실천적 지혜이다. 따라서 실천적 지혜 없이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 또 품성적 덕 없이는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 ① 실천적 지혜는 그 자체로 최고선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 ② 품성적 덕은 삶의 목표들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없다.
- ③ 품성적 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천적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 ④ 품성적 덕은 인간의 본성에 반하지만 습관을 통해 기를 수 있다.
- ⑤ 실천적 지혜는 상황과 무관하게 불변의 규범을 따르도록 이끈다.

12.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몸을 주재하는 것은 마음이고, 마음의 본체가 되는 것은 성(性)이며, 그 작용이 되는 것은 정(情)이다. 성과 정은 모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마음은 성과 정을 통괄한다.
을: 몸을 주재하는 것은 마음이고, 마음이 드러난 것이 의념[意]이다. 의념의 본체는 지(知)이고, 의념이 있는 곳이 물(物)이다.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고, 마음 밖에는 사물도 없다.

- ① 갑: 천리(天理)를 보존하려면 정이 마음을 주재해야 한다.
- ② 갑: 마음의 본체인 성이 마음과 정을 포괄하고 통솔해야 한다.
- ③ 을: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양지(良知)를 획득하도록 힘써야 한다.
- ④ 을: 마음을 바로잡아[正] 하늘이 부여한 이치를 온전히 실현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각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탐구하여 앎을 지극히 해야 한다.

13.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태초부터 당신을 위해 예정된 것들이다. 사건의 연속성 속에는 공정하고 합당한 질서가 내재되어 있다. 이는 모든 사물에 합당한 권리를 부여하는 신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을: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우리는 이러한 쾌락을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쾌락을 가장 으뜸가는 선으로 인식하고, 모든 선택과 회피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 보 기 >

- ㄱ. 갑: 이성애 따르는 삶이 신의 예정과 섭리에 따르는 삶이다.
- ㄴ. 을: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쾌락은 필요하지 않다.
- ㄷ. 을: 모든 고통은 나쁘지만 고통의 감내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 ㄹ. 갑과 을: 자연적이며 필수적인 욕구는 최대한 충족해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14.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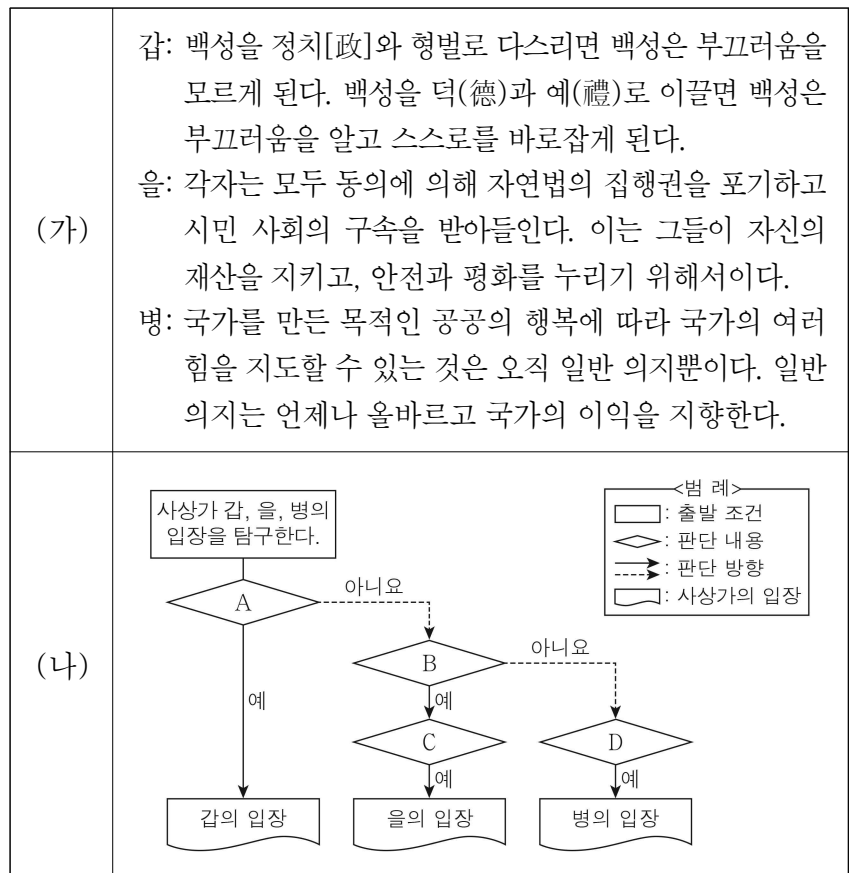
갑: 중생은 무명(無明)의 씨앗과 버릇이 오랫동안 한데 어울려 성품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번 생애 이르러 자성(自性)이 부처와 다름없음을 문득 깨닫더라도, 지혜로써 더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무명을 다스려 크게 쉬는 경지에 도달하기 어렵다.
을: 중생은 무명으로 말미암아 꿈 따라 유전(流轉)하기도 하지만, 모두 석가여래의 한결같은 말씀에 따라 중국에는 일심(一心)의 원천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가 없다. 대승(大乘)의 법에는 오직 일심만이 있다.

< 보 기 >

- ㄱ. 갑: 선정(禪定)을 버리고 지혜(智慧)를 닦아야 한다.
- ㄴ. 갑: 습기(習氣)가 남아 있어도 진리를 단박에 깨칠 수 있다.
- ㄷ. 을: 일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모든 종파의 특수성을 부정해야 한다.
- ㄹ. 갑과 을: 중생은 본래부터 불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사회사상가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 ㄱ. A: 국가는 계약이 아닌 가족 질서가 확장되어 형성된 공동체인가?
- ㄴ. B: 국가 권력의 강제력은 시민의 동의에 의해 정당화되는가?
- ㄷ. C: 사회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권리가 있는가?
- ㄹ. D: 시민들은 일반 의지가 강제하는 복종을 거부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16. 현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인간은 그가 느끼는 불안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만큼 위대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불안은 자유의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주체적으로 결단할 때 불안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을: 인간은 그의 본질을 정해 줄 신이 없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구상하는 무엇일 뿐이다. 인간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자기 자신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의식하게 되는데, 이때 이러한 책임감으로 인해 불안을 느끼게 된다.

< 보 기 >

ㄱ. 갑: 윤리적 실존 단계에서 개인의 모든 불안이 소멸된다.
ㄴ. 을: 개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ㄷ. 갑과 을: 신에게 귀의해야 참된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ㄹ. 갑과 을: 불안은 참된 실존을 회복하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근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선의지는 어떤 목적 달성에 쓸모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선하다. 이성의 참된 사명은 다른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닌 그 자체로 선한 의지를 낳는 것이어야만 한다.
을: 덕과 악덕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덕과 악덕이 일으키는 어떤 인상 또는 소감이다. 도덕성은 판단된다고보다 느껴지는 것이므로 도덕은 이성에서 유래될 수 없다.

① 갑: 선의지의 실천과 행복의 향유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
② 갑: 행위의 도덕적 가치 유무는 행위를 일으킨 의지에 달려 있다.
③ 을: 덕과 악덕은 감각 경험을 초월한 선의지에 의해서 구별된다.
④ 을: 개인의 도덕감은 주관적 감정이므로 보편성을 지닐 수 없다.
⑤ 갑과 을: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 동기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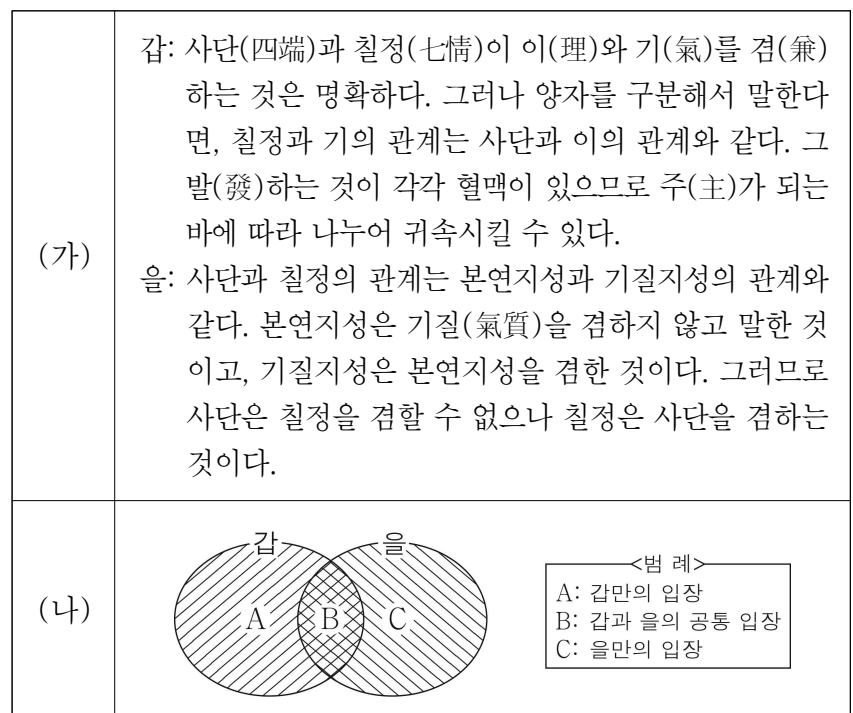
18. 근대 한국 사상이자 갑, 을, 병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사람이 곧 하늘이니[人乃天] 사람을 대할 때 차별이 없어야 한다. 사람의 귀천(貴賤)을 분별함은 곧 한울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사람을 떠나 한울님을 생각할 수 없다.
을: 일원상(一圓相)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정신과 육체를 균형 있게 발전[靈肉雙全]시켜야 한다. 일원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모든 부처와 중생의 본성이다.
병: 동양의 도(道)를 가지고 서양의 기(器)를 행한다면 지구의 오대주는 평정할 것도 없다. 진실로 우리의 도를 잘 시행한다면 서양의 기를 행하는 것은 매우 쉬운 것이다.

① 갑: 봉건적 신분 질서를 유지하고 서양의 문물을 배격해야 한다.
② 을: 일원상을 본받아 일상과 분리되어 종교적 수행을 해야 한다.
③ 병: 서양의 기는 이용후생이 아닌 정덕(正德)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④ 갑과 을: 유교의 이념을 중심으로 불교와 도가 사상을 통합해야 한다.
⑤ 을과 병: 도학(道學)뿐만 아니라 과학의 발전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

19. (가)의 한국 유교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A: 사단은 칠정의 선한 측면[一邊]이다.
ㄴ. B: 칠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탄[乘] 것이다.
ㄷ. B: 기가 이의 주재를 벗어나면 칠정은 선이 될 수 없다.
ㄹ. C: 이는 기와 달리 형체는 없으나 운동성은 있다[有爲].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 다음은 근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쾌락과 고통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쾌락과 고통의 가치는 양으로만 측정되며, 이를 측정할 때에는 강도와 지속성 등 여섯 가지 기준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쾌락의 가치를 측정할 때 양적인 면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어떤 종류의 쾌락은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바람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쾌락을 측정할 때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해야 합니다.



① 갑: 쾌락의 양을 측정할 때 행위자의 쾌락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
② 갑: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것은 인간의 성향에 부합한다.
③ 을: 쾌락의 양적 증가는 필연적으로 쾌락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진다.
④ 을: 쾌락들 간의 질적인 차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한다.
⑤ 갑과 을: 쾌락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